

《西湖夢尋》의 註釋과 翻譯(2)*

— 卷2

金淑香**

<목 차>

1. 《西湖夢尋》에 대한 간략한 소개
2. 卷2의 註釋과 翻譯
 - 2.1. <玉泉寺>
 - 2.2. <集慶寺>
 - 2.3. <飛來峰>
 - 2.4. <冷泉亭>
 - 2.5. <靈隱寺>
 - 2.6. <北高峰>
 - 2.7. <韜光庵>
 - 2.8. <响屐山房>
 - 2.9. <青蓮山房>
 - 2.10. <呼猿洞>
 - 2.11. <三生石>
 - 2.12. <上天竺>

1. 《西湖夢尋》에 대한 간략한 소개

《西湖夢尋》은 明末의 文人 張岱(1597-1689)가 지은 산문소품집이다. 장대는 明朝가 멸망하고 清朝가 들어서는 혼란기를 살면서 사회나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저술에 집중한 문인이다. 특히 명나라의 활기차고 다양하며 변화했던 모습을 기억에 의존하여 독특한 정서를 담아 글로 남겼다. 《西湖夢尋》은 바로 그 중 하나로 중국의 浙江省 杭州에 위치한 호수, 즉 西湖에 대한 이야기다. 장대는 서호를 다섯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중요한 명승지와 경관, 역사와 전설, 그리고 개인적인 감회에 대해 서술했다. 본고는 《서호몽심》의

* 《西湖夢尋》의 註釋과 翻譯(1)은 《中國學論叢》 第58輯에 게재되었음.

** 高麗大學校 中國學研究所 研究教授

두 번째 파트인 西湖西路의 12곳에 대한 주석과 번역이다. 번역은 최대한 원문에 충실한 직역을 위주로 하고 우리말이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은 약간의 의역을 가했다. 본고는 2014년 上海三聯書店에서 출판된 俞瓊穎 評注의 《서호몽심》을 저본으로 하고 기타 여러 평주본을 참고삼아 번역과 주해를 진행했다.

2. 卷2의 註釋과 翻譯

2.1. <玉泉寺>

玉泉寺爲故淨空院. 南齊建元中, 僧曇起說法於此, 龍王來聽, 爲之撫掌出泉, 遂建龍王祠. 晉天福三年, 始建淨空院於泉左. 宋理宗書“玉泉淨空院”額. 祠前有池畝許, 泉白如玉, 水望澄明, 淵無潛甲. 中有五色魚百餘尾, 投以餅餌, 則奮鬣鼓鬣, 攫奪盤旋, 大有情致. 泉底有孔, 出氣如橐籥, 是卽神龍泉穴. 又有細雨泉, 晴天水面如雨點, 不解其故. 泉出可溉田四千畝. 近者曰鮑家田, 吳越王相鮑慶臣采地也. 萬曆二十八年, 司禮孫東瀛於池畔改建大士樓居. 春時, 遊人甚衆, 各攜果餌到寺觀魚, 餵飼之多, 魚皆饜餒, 較之放生池, 則侏儒飽欲死矣.

<옥천사>

玉泉寺는 옛날에 淨空院이었다. 南齊 建元¹⁾ 때의 승려 曇起²⁾가 여기서 설법을 했는데, 용왕이 와서 듣고는 감탄하여 박수를 쳤더니 샘이 나왔다하여 龍王祠가 만들어졌다. 晉 天福 3년³⁾에 비로소 샘 왼쪽에 정공원을 짓기 시작했다.

1) 建元: 南朝 齊 高帝의 연호로 479년에서 482년 동안 사용되었다.

2) 明 田汝成(503-1557)이 지은 《西湖遊覽志》는 서호를 포함한 주변의 세시풍속과 산수, 그리고 명승고적을 기록한 책이다. 《서호몽심》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이 문장 역시 《서호유람지》 卷9 <玉泉寺>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런데 《서호유람지》에서는 승려의 이름을 曇超로 기재해 놓았다. 담초의 姓은 張氏로 河北省 清河 출신으로 전해진다.

宋 理宗⁴⁾이 ‘玉泉淨空院’이란 편액을 썼다. 용왕사 앞에 조금 깊은 연못이 있는데 샘이 옥처럼 희고 물이 멀리서 바라봐도 맑고 깨끗해 껍데기 하나 숨지 못할 정도였다. 연못 가운데는 오색 물고기 백 여 마리가 있었는데 과자부스러기를 던져주면 지느러미를 파닥거리며 서로 차지하려고 빙빙 도는 광경이 꽤 정취가 있었다. 연못 바닥에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 마치 풀무⁵⁾같이 공기가 새어 나왔으니, 이것이 바로 神龍泉穴이다. 또 細雨泉이라는 샘은 맑은 날에도 수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째서 그런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 이 샘물을 빼내면 4千 畝의 밭에 물을 댈 수 있을 정도였다. 가까운 곳에 있는 鮑家田이라 불리는 밭은 吳越王의 재상 鮑慶臣⁶⁾의 封地다. 萬曆 28년에 司禮⁷⁾ 孫東瀛⁸⁾이 못가의 觀音大士사원을 수리했다. 봄이 되면 여행객들이 더욱 많아졌다. 저마다 간식거리를 가져와 사찰의 물고기를 구경했는데 먹이를 너무 많이 먹여 물고기들이 전부 똥똥해졌다. 방생지에 사는 물고기와 비교하면 난쟁이가 따로 없었다.⁹⁾

-
- 3) 天福 3년: 天福은 後晉 高祖의 연호로, 936년에서 943년 동안 사용되었다. 천북 3년은 938년이다.
- 4) 理宗: 송나라의 황제 趙昀(1205-1264)으로, 嘉定 17년(1224) 寧宗이 죽자 승상 史彌遠이 詔書를 고쳐 옹립해 황제가 되었고 40년 동안 재위했다.
- 5) 풀무: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이다.
- 6) 鮑慶臣(864-940): 唐末五代 吳越의 武將 鮑君福으로, 慶臣은 그의 字이다. 처음에 浙東觀察使 劉漢宏의 부하였다가 오월로 투항해 전공을 세워 衢州應援指揮使가 되었다.
- 7) 司禮: 司禮監으로, 明 나라의 내정을 맡은 환관과 궁궐의 사무를 맡은 十二監의 하나다.
- 8) 孫東瀛(?-?): 明 萬曆년간에 司禮太監을 지낸 관리 孫隆으로 東瀛은 그의 號다. 많은 돈을 들여 서호의 명승지를 수리했다고 알려져 있고 《西湖夢尋·西湖總記》의 <明聖二湖>에도 언급되어 있다.
- 9) ‘난쟁이가 배불러 죽는다(侏儒飽欲死)’는 이야기는 《漢書》 卷六十五 <東方朔傳> 第三十五에 나온다. 동방삭이 漢 武帝에게 처우의 개선을 바라며 말하길, “신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난쟁이는 키가 3척 남짓인데 봉록은 쌀 한 부대, 돈 240이며 저는 키가 9척이 넘는데도 봉록이 그와 같습니다. 난쟁이는 배가 불러 죽을 지경이고 소신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臣朔生亦言, 死亦言. 朱儒長三尺餘, 奉一囊粟, 錢二百四十. 臣朔長九尺餘, 亦奉一囊粟, 錢二百四十. 朱儒飽欲死, 臣朔饑欲死.)”라 했으니, 바로 여기서 비롯된 이야기다.

2.2. <集慶寺>

九里松, 唐刺史袁仁敬植. 松以達天竺, 凡九里, 左右各三行, 每行相去八九尺. 蒼翠夾道, 藤蘿冒塗, 走其下者, 人面皆綠. 行里許, 有集慶寺, 乃宋理宗所愛閻妃功德院也. 淳祐十一年建造. 閻妃, 鄞縣人, 以妖豔專寵後宮. 寺額皆御書, 巧麗冠於諸刹. 經始時, 望青采斫, 勳舊不保, 鞭笞追逮, 擾及雞豚. 時有人書法堂鼓云, “淨慈靈隱三天竺, 不及閻妃好面皮.” 理宗深恨之, 大索不得. 此寺至今有理宗御容兩軸. 六陵既掘, 冬青不生, 而帝之遺像竟托閻妃之面皮以存, 何可輕誚也. 元季毀, 明洪武二十七年重建.

<집경사>

九里松은 唐 刺史¹⁰⁾ 袁仁敬¹¹⁾이 심었다. 소나무가 天竺寺까지 이어져 무릇 9리에 달하며, 좌우 각 세 줄로 심었고 줄마다의 거리가 8,9尺이었다. 푸른 잎이 길 양편에 가득 하고 자등도 길을 뒤덮어 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초록빛을 띄었다. 몇 리쯤 더 가면 集慶寺가 있는데 이곳은 宋 理宗이 총애하던 閻妃¹²⁾의 功德院이다.¹³⁾ 淳祐 11년¹⁴⁾에 만들어졌다. 염비는 鄞縣¹⁵⁾사람으로 요염하여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한 후궁이다. 사원의 편액은 모두 황제가 썼는데 정교하고 아름답기가 다른 사찰보다 뛰어났다. 처음 이 사원을 지을 때 푸른 잎만 보이던 잘라버려 공훈이 있는 옛 신하의 무덤도 보존되지 못하고 채찍질당하고 쫓겨나 그 불안함이 닭과 돼지까지 미쳤다. 당시

10) 刺史: 漢 武帝 때 만들어진 지방 행정 감찰직이다.

11) 袁仁敬(?-?): 唐 玄宗 開元 13년(725년)에 杭州刺史를 맡았던 袁仁恭으로, 당시 유명한 司刑官이었다. 제상 張九齡과 친분이 있었으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백성들의 신망을 받았다.

12) 閻妃: 宋 理宗 만년의 총애하던 후궁으로 貴妃까지 책봉되었던 인물이다. 황제의 총애를 믿고 정사를 어지럽혀 백성들의 미움이 깊었다고 전해진다.

13) 功德院: 시주를 받아 세운 절인데, 불가에서 좋은 일을 쌓은 공과 불도를 수행한 덕을 공덕이라 한다.

14) 淳祐 11년: 淳祐는 宋 理宗의 연호로 1241년에서 1252년 동안 사용되었다. 순우 11년은 1251년이다.

15) 鄞縣: 지금의 浙江省 寧波市.

누군가 법당의 북에 적기를, “淨慈寺¹⁶⁾, 靈隱寺¹⁷⁾, 三天竺寺¹⁸⁾도 염비의 예쁜 얼굴에 미치지 못하네.”라 했다. 이종이 이 글귀를 매우 싫어하여 적은 자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 절에는 지금까지도 이종의 초상 두 폭이 남아 있다. 六陵도 이미 도굴되었고 감탕나무도 자라지 않는데¹⁹⁾ 이종의 얼굴은 염비의 얼굴 덕분에 남아 있으니, 그 글귀가 어찌 가벼이 책망한 것이겠는가? 집경사는 元末에 훼손되었다가 明 洪武 27년²⁰⁾에 재건되었다.

2.3. < 飛來峰 >

飛來峰, 棱層剔透, 嵌空玲瓏, 是米顛袖中一塊奇石. 使有石癖者見之, 必具袍笏下拜, 不敢以稱謂簡褻, 只以石丈呼之也. 深恨楊髡, 遍體俱鑿佛像, 羅漢世尊, 櫛比皆是, 如西子以花黷之膚, 瑩白之體, 刺作臺池鳥獸, 乃以黔墨塗之也. 奇格天成, 妄遭錐鑿, 思之骨痛. 翻恨其不匿影西方, 輕出靈鷲, 受人戮辱; 亦猶士君子生不逢時, 不束身隱遁, 以才華傑出, 反受摧殘, 郭璞、禰衡並受此慘矣. 慧理一歎, 謂其何事飛來, 蓋痛之也, 亦惜之也. 且楊髡沿溪所刻羅漢, 皆貌已像, 騎獅騎象, 侍女皆裸體獻花, 不一而足. 田公汝成錐碎其一, 余少年讀書响嘯, 亦碎其一. 聞楊髡當日住德藏寺, 專發古塚, 喜與殭屍淫媾. 知寺後有來提舉夫人與陸左丞化女, 皆以色夭, 用水銀灌殮. 楊命發其塚. 有僧眞諦者, 性呆蠢, 爲寺中樵汲, 聞之大怒, 嗥呼詬誶. 主僧懼禍, 鎖禁之. 及五鼓, 楊髡起, 趣衆發掘, 眞諦逾垣而出, 抽韋馱

16) 淨慈寺: 서호의 남쪽에 위치한 사찰로, 《서호몽심》 권4에 <정자사>가 수록되어 있다.

17) 靈隱寺: 東晉 咸和 元年(326)에 지어진 사찰로 서호의 서쪽, 北高峰의 앞에 있다. 《서호몽심》 권2에 <영은사>가 수록되어 있다.

18) 三天竺寺: 서호 서쪽에 위치한 영은사의 남쪽에 있는 사찰로, 《서호몽심》의 권2의 마지막에 <상천축>이 수록되어 있다.

19) 六陵: 南宋 여섯 황제인 高宗, 孝宗, 光宗, 寧宗, 理宗, 度宗의 묘다. 元 世祖 至元년간에 楊璉眞伽(?-?)가 강남지역의 불교를 관리하면서 재상 桑哥(?-1291)와 결탁해 남송 여섯 황제의 묘를 도굴했다. 후에 唐珣과 林景熙가 송 고종과 효종의 유골을 수습해 紹興 蘭渚山 부근에 묻고 감탕나무를 심어 위치를 표시했다.

20) 洪武 27년: 明 太祖 朱元璋의 연호로 1368년부터 1398년까지 사용되었다. 홍무 27년은 1394년이다.

木杵, 奮擊楊髡, 裂其腦蓋. 從人救護, 無不被傷. 但見眞諦於衆中跳躍, 每逾尋丈, 若隼撇虎騰, 飛捷非人力可到. 一時燈炬皆滅, 稷鋤畚插都被毀壞. 楊髡大懼, 謂是韋馱顯聖, 不敢往發, 率衆遽去, 亦不敢問. 此僧也, 洵爲山靈吐氣.

<비래봉>

비래봉은 험준하고 투명하여 문양이 영롱하니 米顛²¹⁾의 소매 속에서 나온奇石같다. 돌 애호가에게 보여주면 필시 袍笏²²⁾을 갖추고 절을 하며 감히 하대하지 못하고 ‘石丈’이라고 높여 불렀을 것이다.²³⁾ 楊髡²⁴⁾에게 원한이 깊은 건 곳곳에 불상을 조각했기 때문인데 羅漢²⁵⁾과 世尊²⁶⁾을 이렇게 즐비하게 새겨 놓았으니, 마치 西子²⁷⁾의 고운 살결과 새하얀 몸체에 누대·연못·새·짐승을 새겨 넣고 겹겹에 칠한 것 같다. 비래봉의 기이한 모양은 하늘이 만든 것인데 아무렇게나 자르고 깎았으니 생각하면 뻗속까지 아프다. 문득 안타까운 점은 비래봉이 西方에 숨어 있지 못하고 가벼이 靈鷲²⁸⁾를 떠나와 남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군자가 때를 만나지 못했을 때 은둔하지도 못하고 뛰어

21) 米顛: 北宋시대의 화가 米芾(1051-1107). 돌을 애호하여 奇石에 대고 절을 하고 지나친 집착을 보였기에 米顛 혹은 米癡로 불렸다.

22) 袍笏: 예복으로 입던 옷옷의 일종인 도포와 손에 드는 예물인 홀로, 朝服을 뜻한다.

23) 宋 葉夢得 《石林燕語》 卷十에 보면, 米芾이 奇石을 보고 양쪽에 袍笏을 들고 절하라고 명하고 매번 石丈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米芾談諧好奇……見立石頗奇, 喜曰, 此足以當我拜. 遂命左右取袍笏拜之, 每呼曰‘石丈.’” 본문에서의 ‘丈’은 손윗사람이나 나이든 남성을 지칭하는 말로 奇石을 높여 불렀다는 뜻이다.

24) 楊髡(?-?): 元나라 唐兀 사람으로 僧官이었던 楊璉眞伽다. 世祖 至元 14년(1277년) 江南 釋教總統이 되어 南宋 趙氏들의 황릉과 대신들의 무덤을 도굴했는데, 101곳이나 되었다. 사람들에게 美人과 보물들을 셀 수 없이 받았고, 佛寺 명의로 佃戶 50만 호를 점유했다. 1291년 官物을 훔쳤다가 투옥되었다. 관리들이 사형에 처할 것을 주청했지만 세조가 허락하지 않고 사람과 토지만 환수하도록 했다. 髡은 머리를 깎아 버리는 형벌로, 이후 승려를 폄하하는 호칭이 되었다.

25) 羅漢: 羅漢은 阿羅漢의 준말로 소송의 교범을 수행하는 聲聞 4과의 가장 윗자리다.

26) 世尊: 석가모니에 대한 존칭이다.

27) 西子: 春秋시기 越나라의 미녀 西施다.

28) 靈鷲: 영취는 원래 인도의 산 이름으로, 비래봉을 가리킨다. 東晉 때 西天竺의 승려 慧理가 晉成帝 咸和 초년에 중국에 와서 처음에 杭州에 머물 때 산세가 수려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중천축국 영취산의 작은 봉우리인데, 어떻게 날아왔는지 모르겠구나!(此乃中天竺國靈鷲山之小嶺 不知何以飛來)” 그 후 慧리는 靈鷲寺와 靈隱寺를 지었다고 한다.

난 재능을 펼치는데 도리어 모욕을 당한 것과 같으니, 郭璞²⁹⁾이나 禰衡³⁰⁾ 같은 자가 모두 이러한 비참함을 겪었다. 慧理³¹⁾가 한탄하며 무슨 일로 날아 온 거냐고 한 말은 무릇 이 점이 아프고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또한 양곤이 계곡을 따라 새겨놓은 나한은 모두 본인의 모습을 닮았는데, 사자를 타는 모습이나 코끼리를 타는 모습, 시녀들이 모두 나체로 꽃을 바치는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田公 汝成³²⁾이 그 중 하나를 부수었고 내가 어릴 적 글공부하던 岫巖山房에서도 그 중 하나를 부셨다. 듣자하니 양곤은 당시 德藏寺에 살면서 고편파는 일에 전념하고 강시를 강간하길 즐겼다. 절 뒤에 來提擧의 夫人과 陸左丞의 딸³³⁾이 묻혔는데, 두 사람 모두 용모가 아름답고 요절했으며 수은을 부여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양곤은 그 무덤을 파버리라 명했다. 한편 眞諦라는 승려가 있는데 천성이 어리석어 절에서 나무나 하고 물이나 길렀는데, 그가 양곤의 일을 듣고는 크게 화를 내며 노발대발하고 고향을 지르며 욕을 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은 화가 미칠까 두려워 진체를 가두어버렸다. 다음날 五更이 되자 양곤이 일어나 사람들을 모아 무덤을 파러 가자 진체가 담을 넘어

-
- 29) 郭璞(276-324): 東晉 河東 聞喜 사람으로 字는 景純이다. 박학하여 寸分과 古文奇字, 曆算, 荀筮術에 밝았고, 특히 詩賦에 뛰어났다. 西晉 말에 長江을 지나다가 宣城太守 殷祐의 參軍이 되어 王導의 존중을 받았다. 晉元帝 때 著作佐郎이 되어 王隱과 함께 《晉史》를 편찬하고 尙書郎으로 올랐다. 나중에 王敦의 記室參軍이 되었다. 점을 쳐서 불길하다며 왕돈의 모반 계획을 만류했다가 왕돈에게 피살당했다.
- 30) 禰衡(173-198): 後漢 말기 平原 般縣 사람으로 젊었을 때부터 말주변이 있었고, 성격이 강직하면서 오만했다. 오직 孔融, 楊修와만 마음을 터놓고 사귀었는데 공용이 그의 재능을 아껴 여러 차례 曹操 앞에서 칭송했다. 조조가 만나려고 불렀지만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다. 조조가 불러 鼓史로 삼아 賓客들을 불러 모으고 그를 옥보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에게 모욕을 당했다. 조조가 노하여 형주에 사신으로 보내 劉表의 손을 빌려 그를 죽이려 했다. 유표를 만나 비난의 말을 퍼 분자 기분 나쁘게 여긴 유표는 그를 강태대수 黃祖에게 보냈다. 결국 옥하는 성격의 황조를 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 31) 慧理: 주석 25번 참조.
- 32) 田公 汝成(1503-1557): 田汝成은 浙江 錢塘 사람으로 字는 叔禾다. 明 嘉靖 5년(1526) 진사가 되고, 이후 禮部祠祭郎中과 廣東提學僉使, 福建提學副使 등을 역임했다. 해임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뒤로는 호수와 산을 유람하고 명승고적을 탐방하면서 지냈다. 박학하고 古文에 능했으며, 敘事에 뛰어났다. 저서에 《田叔禾集》 12권과 《西湖遊覽志》 24권, 《西湖遊覽志餘》 26권 등이 있다.
- 33) 이 두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원문에 적힌 성씨가 元代 姚桐壽가 쓴 《樂郊私語》에 적힌 내용과 다른데, 《악교사어》에는 ‘來’ 자가 ‘宋’, ‘化女’가 ‘愛女’로 적혀있다.

나와 韋馱³⁴⁾의 나무 몽둥이를 뽑아들고 양곤을 때려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시종이 구했지만 상처 입은 곳이 많았다. 그런데 진체가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았더니, 뭘 때마다 몇 척이 넘었으니 마치 매가 날아오르고 호랑이가 뛰어오르는 듯 재빨라 사람의 능력으로 가히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또 일순간 등불이 모두 꺼지고 곱방매·괭이·삼태기·삼도 다 망가졌다. 양곤은 무척 두려워하며 위타의 현신이 나타났다고 하고는 감히 무덤을 파러 가지 못하고 무리를 이끌고 황급히 돌아간 후 다시 묻지 못했다. 이 승려는 실로 산신령을 대신해 분노를 토했을 뿐이다.

2.4. <冷泉亭>

冷泉亭在靈隱寺山門之左。丹垣綠樹，翳映陰森。亭對峭壁，一泓泠然，淒清入耳。亭後西栗十餘株，大皆合抱，冷暗樾，遍體清涼。秋初栗熟，大若櫻桃，破苞食之，色如蜜珀，香若蓮房。天啓甲子，余讀書响嶼山房，寺僧取作清供。余謂雞頭實無其鬆脆，鮮胡桃遜其甘芳也。夏月乘涼，移枕簟就亭中臥月，澗流淙淙，絲竹並作。張公亮聽此水聲，吟林丹山詩：“流向西湖載歌舞，回頭不似在山時。”言此水聲帶金石，已先作歌舞矣，不入西湖安入乎！余嘗謂住西湖之人，無人帶歌舞，無山不帶歌舞，無水不帶歌舞，脂粉紈綺，卽村婦山僧，亦所不免。因憶眉公之言曰：“西湖有名山，無處士；有古刹，無高僧；有紅粉，無佳人；有花朝，無月夕。”曹娥雪亦有詩嘲之曰：“燒鵝羊肉石灰湯，先到湖心次岳王。斜日未曛客未醉，齊拋明月進錢塘。”余在西湖，多在湖船作寓，夜夜見湖上之月，而今又避囂靈隱，夜坐冷泉亭，又夜夜對山間之月，何福消受。余故謂西湖幽賞，無過東坡，亦未免遇夜入城。而深山清寂，皓月空明，枕石漱流，臥醒花影，除林和靖、李响嶼之外，亦不見有多人矣。卽慧理、賓王，亦不許其同在臥次。

34) 韋馱: 원래 婆羅門의 天神이었으나 훗날 불교에 의해 흡수되어 護法諸天의 하나가 되었다. 그 형상이 어린아이의 얼굴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으며 손에 金剛杵를 들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天王大殿彌勒菩薩의 뒤에 안치하여 석가모니 불상을 마주보고 있다.

<냉천정>

冷泉亭은 靈隱寺 입구 왼쪽에 있다. 붉은 담에 푸른 나무가 뒤덮어 그림자를 만들어 음산하다. 정자는 가파른 절벽을 마주하고 있고 깊은 샘물 하나에서 차고 싸늘한 소리가 귀에 들려온다. 냉천정 뒤에 있는 열 그루가 넘는 밤나무는 양팔로 껴안을 정도인데, 그 차갑고 어두운 그늘 아래 있으면 온 몸이 서늘해졌다. 초가을 밤이 익으면 큰 것은 앵두만 하여 껍데기를 까서 먹으면 호박 같은 빛깔에 蓮房³⁵⁾같은 향이 났다. 天啓 甲子³⁶⁾, 내가 峴巖山房³⁷⁾에서 글을 읽었을 때 스님이 밤을 가져와 공양하셨다. 나는 가시연밥³⁸⁾도 실지로는 그 밤처럼 바삭하지 않고 신선한 호두도 그 밤처럼 감미롭고 향기롭지 못하다고 했다. 여름날 서늘한 바람을 쐬면서 베개와 대자리를 옮겨 정자 한가운데 누워 달을 바라보면,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현악기와 관악기가 어우러지는 것 같았다. 張公亮³⁹⁾은 이 물소리를 듣고 林丹山⁴⁰⁾의 詩를 읊었다. “서호로 흐르며 노래와 춤을 실어 나르니 돌아보면 산에 있었을 때 같지 않구나.” 내가 이 물소리에 악기가 실려 있다고 말했는데 나보다 먼저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고 하니, 이 물이 서호가 아니면 어디로 흘러들어갈 것인가! 내 일찍이 서호에 사는 사람 중에 노래와 춤을 지니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산 중에 노래와 춤을 지니지 않는 산이 없으며 물 중에 노래와 춤을 지니지 않은 물이 없으니, 연지와 분을 바르고 비단 옷을 입은 마을의 부녀자나 산에 사는 승려라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眉公⁴¹⁾이 한 말이 생각났다.

35) 蓮房: 연꽃의 열매가 들어 있는 송이다.

36) 天啓 甲子: 1624년이다.

37) 峴巖山房: 구루산방은 장대가 天啓 甲子, 즉 1624년에 글공부를 하던 곳이었다. 《서호몽심》과 《도암몽역》에 각각 <峴巖山房>이란 제목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38) 가시연밥: 원문의 雞頭는 芡仁(가시연밥)의 별칭이다. 꽃이 주먹만 하고 닭 머리와 비슷하다 하여 계두라 한다. 가시연밥의 껍질은 검푸르며 속살은 흰 것이 밤과 비슷하다.

39) 張公亮(1583-1642): 明代의 문인 張明弼로 公亮은 그의 字이다. 《서호몽심》 권1 <六賢祠>에서도 언급되었다.

40) 林丹山(?-?): 宋代 詩人 林樞으로, 지금의 江蘇省 蘇州출신이며 <冷泉亭>이란 詩를 지었다. “한 줄기 맑은 물은 시심에 스며들고 차고 따스함은 때가 옴에 절로 알 뿐, 서호로 흐르며 노래와 춤을 실어 나르니 돌아보면 산에 있었을 때 같지 않구나. (一泓清可沁詩脾, 冷暖年來只自知: 流向西湖載歌舞, 回頭不似在山時.)”

41) 眉公: 明末의 문인 陳繼儒(1558-1639)로, 字는 仲醇이고, 號는 眉公이다. 詩文에 뛰어났

“서호에는 名山이 있으나 隱士는 없다. 古刹은 있으나 高僧은 없다. 여인은 있으나 佳人은 없고 꽃피는 아침은 있으나 달 뜬 밤은 없다.” 曹娥雪⁴²⁾도 詩에서 비롯된, “구운 거위 고기와 양고기, 석회탕을 가지고 먼저 호심정에 도착한 뒤 악왕묘로 간다. 해가 지기 시작해 어스름할 때 여행객은 아직 취하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밝은 달구경을 포기하고 전당강으로 들어간다.”라 했다. 내가 서호에 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호숫배를 짐삼아 밤마다 호수에 뜬 달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영은사로 소란을 피해 한밤중에 냉천정에 앉아 또 밤마다 산속에 뜬 달을 마주하고 있으니, 어찌 이런 복을 누리려는 걸까? 내 이러한 까닭에 서호의 그윽함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소동파를 넘어선 자가 없지만 그 역시 밤이 되면 성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깊은 산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밝은 달이 하늘에 걸렸을 때, 돌을 베개 삼고 흐르는 물로 씻으며 꽃 그림자에 자다 깬 사람은 林和靖⁴³⁾과 李岫巖⁴⁴⁾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 즉 慧理와 賓王⁴⁵⁾역시 그들처럼 누워보지 못했다.

2.5. <靈隱寺>

明季昭慶寺火，未幾而靈隱寺火，未幾而上天竺又火，三大寺相繼而毀。是時唯具德和尚爲靈隱住持，不數年而靈隱早成。蓋靈隱自晉咸和元年，僧慧理建，山門匾曰“景勝覺場”，相傳葛洪所書。寺有石塔四，錢武肅王所建。宋景德四年，改景德

고 그림에도 능했다. 여러 차례 조정에 부름을 받았지만 모두 병을 이유로 거절했다. 82살로 생애를 마칠 때까지 풍류와 자유로운 문필생활로 일생을 보냈다. 저서로는 《寶顏堂秘笈》과 《眉公全集》이 있다.

- 42) 曹娥雪: 萬曆연간의 文人으로 王思任(1575-1646)의 친구로 알려져 있다.
 43) 林和靖: 임화정은 北宋의 시인 林逋(967-1028)다. 字는 君復이며 和靖은 宋 仁宗이 하사한 시호다. 어려서부터 경사백가를 두루 통달할 정도로 총명했는데 놀기를 좋아하여 성인이 된 후에는 서호에 살며 배를 타고 부근의 사찰을 다니며 승려들과 시를 주고받았다.
 44) 李岫巖: 李芑로 字는 用晦다. 대략 明 隆慶·萬曆 연간의 인물로 추정되며 徐渭와 도광암산 아래에서 벗하며 여러 채의 산방을 짓고 이름을 岫巖라 지었다.
 45) 賓王: 唐代 시인 駱賓王(638?-684?)으로 王勃, 楊炯, 盧照鄰과 함께 初唐四傑로 불린다.

靈隱禪寺, 元至正三年毀. 明洪武初再建, 改靈隱寺. 宣德七年, 僧曇贊建山門, 良玠建大殿. 殿中有拜石, 長丈餘, 有花卉鱗甲之文, 工巧如畫. 正統十一年, 珖理建直指堂, 堂文額爲張卽之所書, 隆慶三年毀. 萬曆十二年, 僧如通重建; 二十八年司禮監孫隆重修, 至崇禎十三年又毀. 具和尚查如通舊籍, 所費八萬, 今計工料當倍之. 具和尚慘淡經營, 咄嗟立辦. 其因緣之大, 恐蓮池金粟所不能逮也. 具和尚爲余族弟, 丁酉歲, 余往候之, 則大殿、方丈尙未起工, 然東邊一帶, 朗閣精藍凡九進, 客房僧舍百什餘間, 棐幾藤床, 鋪陳器皿, 皆不移而具. 香積廚中, 初鑄三大銅鍋, 鍋中煮米三擔, 可食千人. 具和尚指鍋示余曰: “此弟十餘年來所掙家計也.” 飯僧之衆, 亦諸利所無. 午間方陪余齋, 見有沙彌持赫蹄送看, 不知何事, 第對沙彌曰: “命庫頭開倉.” 沙彌去. 及余飯後出寺門, 見有千餘人蜂擁而來, 肩上擔米, 頃刻上稟, 斗斛無聲, 忽然競去. 余問和尚, 和尚曰: “此丹陽施主某, 歲致米五百擔, 水脚挑錢, 纖悉自備, 不許飲常住勺水, 七年於此矣.” 余爲嗟歎. 因問大殿何時可成, 和尚對以: “明年六月, 爲弟六十, 法子萬人, 人饋十金, 可得十萬, 則吾事濟矣.” 逾三年而大殿、方丈俱落成焉. 余作詩以記其盛.

<영은사>

明代 말기 昭慶寺가 불에 타고 얼마 후 靈隱寺도 불에 뒹고 또 얼마 뒤에 上天竺寺도 불에 뒹으니, 세 곳의 큰 사찰이 잇달아 불에 타 망가졌다. 이 때에 具德⁴⁶⁾ 스님이 영은사의 주지를 맡아 몇 년이 채 안되어 영은사 보수를 일찌감치 완성했다. 무릇 영은사는 晉 咸和 元年⁴⁷⁾에 慧理 스님이 지었고, 절 입구 현판에 ‘경치가 멋진 깨달음의 장소’라 적혀 있는데, 이는 葛洪⁴⁸⁾이 썼다고 전해진다. 절에 있는 석탑 네 개는 錢武肅王⁴⁹⁾이 만들었다. 宋 景德 4년⁵⁰⁾에 ‘景

46) 具德(1600-1667): 장대의 사촌동생 張弘禮로, 자가 具德이다.

47) 咸和 元年: 咸和는 東晉 成帝의 연호로 326년부터 334년까지 사용되었다. 합화 원년은 326년이다.

48) 葛洪(284-364): 東晉의 사상가로 江蘇省 丹陽 출신이다. 字는 稚川이고, 號는 抱朴子다. 평소 학문을 좋아해 많은 책을 두루 읽었고 특히 神仙導養의 술법을 좋아했다.

49) 錢武肅王(852-932): 吳 越國의 개국자 錢鏐로, 諡號가 武肅이다.

50) 景德 4년: 景德은 宋 眞宗 趙恒(968-1022)의 연호로 1004년부터 1007년까지 사용되었다. 景德 4년은 1007년이다.

德靈隱禪寺'로 개명되었는데 元 至正 3년⁵¹⁾에 훼손되었다. 明 洪武 초에 재건되면서 영은사로 개명되었다. 宣德 7년⁵²⁾에 승려 曇贊이 절문을 만들었고 승려 良玠가 대전을 지었다. 대전에 있는 拜石⁵³⁾은 길이가 1丈 남짓으로 화초와 물고기 문양이 그림을 그려 놓은 듯 정교했다. 正統 11년⁵⁴⁾에 玟理가 直指堂을 만들었고 직지당의 현판을 張郎之⁵⁵⁾가 적었는데 隆慶 3년⁵⁶⁾에 망가졌다. 萬曆 12년⁵⁷⁾에 승려 如通⁵⁸⁾이 다시 지었고 28년에 司禮監 孫隆⁵⁹⁾이 보수했으나 崇禎 13년⁶⁰⁾에 다시 망가졌다. 구덕 스님이 여통의 옛 장부를 조사해니 사용한 경비가 8萬으로 지금 계산해보면 공사비용이 마땅히 그 두 배는 되어야 했다. 구덕 스님은 심혈을 기울여 경영하여 곧바로 완성했다. 그 크나큰 인연은 아마 蓮池大師⁶¹⁾와 金粟居士⁶²⁾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구덕 스님은 내 친척 동생으로 丁酉年⁶³⁾에 내가 그의 안부를 살피러 가보니, 대전과 方丈室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나 동쪽 일대 누각과 사원 아홉 채와 손님방과

-
- 51) 至正 3년: 至正은 元 惠宗(1320-1370)의 연호로 1341년부터 1370년까지 사용되었다. 지정 3년은 1343년이다.
- 52) 宣德 7년: 宣德은 明 宣宗 朱瞻基(1398-1435)의 연호로 1426년부터 1435년까지 사용되었다. 선덕 7년은 1432년이다.
- 53) 拜石: 절하는 자리에 깔아 놓은 돌이다.
- 54) 正統 11년: 正統은 明 英宗 朱祁鎮(1427-1464)의 연호로 1436년부터 1449년까지 사용되었다. 정통 11년은 1446년이다.
- 55) 張郎之(1186-1266): 南宋의 서법가로 字는 溫夫이며 安徽省 출신이다. 參知政事 張孝伯의 아들로 명문집안의 자제로 성장했다. 書風은 米芾과 褚遂良에게서 영향을 받았지만, 독창적인 필법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大字에 특히 뛰어났다. 명나라의 董其昌은 그의 호쾌하고 힘찬 필법을 일컬어 "하늘을 가리고 땅을 뒤덮는 듯하다"고 격찬했다.
- 56) 隆慶 3년: 隆慶은 明 穆宗 朱載堉(1537-1572)의 연호로 1567년부터 1572년까지 사용되었다. 융경 3년은 1569년이다.
- 57) 萬曆 12년: 萬曆은 明 神宗 朱翊鈞(1563-1620)의 연호로 1573년부터 1620년까지 사용되었다. 만력12년은 1584년이다.
- 58) 如通: 明代 萬曆 연간에 영은사의 주지로 있었던 승려다.
- 59) 司禮監 孫隆: <集慶寺> 8번 주석 참조.
- 60) 崇禎 13년: 崇禎은 明 思宗 朱由檢(1611-1644)의 연호로 1628년부터 1644년까지 사용되었다. 숭정 13년은 1640년이다.
- 61) 蓮池大師(1535-1615): 明代의 學僧 袞宏으로 雲棲大師로도 불린다. 俗姓은 沈씨고, 仁和 사람이다. 법호가 蓮池고, 자는 佛慧다. 隆慶 5년(1571) 杭州 雲棲寺에 머물러 雲棲大師 또는 운서주공이라고도 했다. 紫柏, 憨山, 滿益과 함께 명나라 4대 高僧으로 불린다.
- 62) 金粟居士: 維摩詰居士로 초기 불교의 유명한 승려다. 전생이 金粟如來라고 전해진다.
- 63) 丁酉年: 1657년이다.

승방 백 여 칸, 나무 책상과 등나무 침상, 그리고 진열된 도구들이 옮길 필요없이 잘 갖춰져 있었다. 주방에 막 만든 세 개의 큰 구리 솥에 쌀 석 짐(백 근)을 지으면 천 명이 먹을 수 있었다. 구덕 스님은 솥을 가리켜 내게 보여주며, “이것이 제가 십여 년 간 모은 가산입니다.”라 했다. 飯僧⁶⁴이 많은 것 역시 다른 사찰에는 없는 일이었다. 오후에 바야흐로 나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 沙彌⁶⁵가 글이 적힌 종이를 가져와 보여주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우가 사미에게 “庫頭⁶⁶에게 창고 문을 열라고 하라.”고 분부를 내리자, 사미승이 갔다. 내가 밥을 다 먹고 절문을 나가면서 보니 천여 명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 어깨에 둘러멘 쌀 포대를 순식간에 내린 뒤 무개를 다는 소리도 없이 갑자기 떠났다. 내가 구덕 스님에게 묻자 그가 “이는 丹陽⁶⁷의 어느 분께서 시주한 것인데 해마다 쌀 오백 짐을 보내시며 수로 운송비도 모두 스스로 준비하시고 짐꾼이 와서 마시는 한 잔의 물도 허락하지 않았으니, 7년 동안 이어져 지금까지 왔습니다.”라 하니 내가 감탄했다. 이어서 대전은 언제 완성될지를 묻자 구덕 스님이 대답했다. “내년 6월에 제 나이가 60입니다. 불자 만 명이 사람마다 10金을 시주하면 가히 10萬을 얻을 수 있으니, 제 일을 완성할 수 있지요.” 3년 뒤 대전과 방장실을 모두 완성했다. 내가 시를 지어 그 성대한 상황을 기록했다.

2.6. < 北高峰 >

北高峰在靈隱寺後, 石磴數百級, 曲折三十六灣. 上有華光廟, 以祀五聖. 山半有馬明王廟, 春日祈蠶者咸往焉. 峰頂浮屠七級, 唐天寶中建, 會昌中毀; 錢武肅王修復之, 宋咸淳七年復毀. 此地群山屏繞, 湖水鏡涵, 由上視下, 歌舫漁舟, 若鷗鳧

64) 飯僧: 밥을 짓거나 하면서 심부름하는 어린 승려를 말한다.

65) 沙彌: 막 출가한 견습승을 말한다.

66) 庫頭: 사찰의 금전과 곡물 등을 관리하는 승려를 말한다.

67) 丹陽: 丹陽湖를 비롯 지금의 江蘇省과 浙江省 일대를 말한다.

出沒煙波，遠而益微，僅規其影。西望羅刹江，若匹練新濯，遙接海色，茫茫無際。張公亮有句：“江氣白分海氣合，吳山青盡越山來。”詩中有畫。郡城正值江湖之間，委蛇曲折，左右映帶，屋宇鱗次，竹木雲霧，鬱鬱蔥蔥，鳳舞龍盤，真有王氣蓬勃。山麓有無著禪師塔。師名文喜，唐肅宗時人也，瘞骨於此。韓侂胄取爲葬地，啓其塔，有陶龕焉。容色如生，發垂至肩，指爪盤屈繞身，舍利數百粒，三日不壞，竟茶毗之。

< 북고봉 >

北高峰은 靈隱寺의 뒤에 있는데 수백 개의 돌계단이 36급으로 굽어져 있다. 위에는 華光廟⁶⁸)가 있어 五聖⁶⁹)의 제사를 지냈다. 산허리에는 馬明王廟⁷⁰)가 있어 봄날 양잠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가 기원한다. 정상에 있는 7층 불탑은 唐 天寶⁷¹) 연간에 지어졌다가 會昌⁷²) 연간에 훼손되었다. 錢武肅王이 수리했는데 宋 咸淳 7년⁷³)에 다시 훼손되었다. 이곳은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호수 물은 거울처럼 맑아 위에서 내려다보면 노랫배와 고기잡이배가 마치 갈매기와 백로가 안개가 가득 낀 수면에 출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면서 간신히 그림자만 보인다. 서쪽을 바라보면 羅刹江⁷⁴)이 보이는데 꼭 새로 빨아 놓은 비단처럼 멀리 푸른 바다와 만나 아득히 끝이 없는 듯 했다. 장공량의 시구에서, “강의 기운이 하얗게 나뉘었다가 바다의 기운과 합쳐지고 吳山의 푸르름이 다하니 越山이 오는 구나.”라 했으니 시 속에 그림이 있는 듯하다. 여러 城이 江湖 사이에 위치하여 강물이 굽이쳐 흐르며 좌우를 비춘다. 집들이 즐비하고 대나무가 구름처럼 우거져 울창하니 봉황이 춤을 추고 용이 빙빙 도는 것 같아 실로 제왕의 기운이 느껴졌다. 북고봉의 산기슭에

68) 華光廟: 326년에 지어진, 항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靈順寺의 별칭이다.

69) 五聖: 고대 중국의 다섯 명의 성현, 黃帝, 堯王, 舜王, 禹王, 湯王을 말한다.

70) 馬明王廟: 馬明王은 민간에서 모시던 蠶神이다.

71) 天寶: 唐 玄宗 李隆基(685-762)의 연호로 742년에서 756년 동안 사용되었다.

72) 會昌: 唐 武宗 李炎(814-846)의 연호로 814년에서 846년 동안 사용되었다.

73) 咸淳 7년: 咸淳은 宋 度宗 趙祿(1240-1274)의 연호로 1265년에서 1274년 동안 사용되었다. 함순 7년은 1271년이다.

74) 羅刹江: 錢塘江을 말한다. 羅刹은 원래 고대 인도의 신으로, 불교에서는 악귀의 총칭이다. 전당강의 거센 물살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다.

는 無著禪師塔⁷⁵⁾이 있다. 선사의 이름은 文喜로, 唐 肅宗때의 인물인데 이곳에 유골이 묻혔다. 韓侂胄⁷⁶⁾가 장지로 삼기 위해 그 탑을 열었더니 안에 도자기로 만든 감실이 있었다. 선사의 얼굴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하고 머리카락도 어깨까지 늘어져 있었으며 손톱이 전신을 휘감았고 사리도 수백 개가 나왔다. 사흘 동안 두어도 썩지 않자 마침내 화장했다.

2.7. < 韜光庵 >

韜光庵在靈隱寺右之半山, 韜光禪師建. 師, 蜀人, 唐太宗時, 辭其師出遊, 師囑之曰, “遇天可留, 逢巢即止.” 師遊靈隱山巢溝塢, 值白樂天守郡, 悟曰, “吾師命之矣.” 遂卓錫焉. 樂天聞之, 遂與爲友, 題其堂曰“法安”. 內有金蓮池, 烹茗井, 壁間有趙閱道, 蘇子瞻題名. 庵之右爲呂純陽殿, 萬曆十二年建, 參政郭子章爲之記. 駱賓王亡命爲僧, 匿跡寺中. 宋之問自謫所還至江南, 偶宿於此. 夜月極明, 之問在長廊索句, 吟曰, “鶯嶺鬱岩嶢, 龍宮鎖寂寥.” 後句未屬, 思索良苦. 有老僧點長明燈, 問曰, “少年夜不寐, 而吟諷甚苦, 何耶?” 之問曰, “適欲題此寺, 得上聯而下句不屬.” 僧請吟上句, 宋誦之. 老僧曰, “何不云‘樓觀滄海日, 門對浙江潮?’” 之問愕然, 訝其適麗, 遂續終篇. 遲明訪之, 老僧不復見矣. 有知者曰, 此駱賓王也.

< 도광암 >

韜光庵은 靈隱寺 우측 산허리에 있는데 韜光禪師가 지었다. 도광선사는 蜀⁷⁷⁾사람으로, 唐 太宗⁷⁸⁾때 사부에게 이별을 고하고 외지로 떠남에 사부가

75) 無著禪師塔: 無著禪師(821-900)는 唐 肅宗때의 승려 朱文喜로, 7세 때 출가하여 계율과 교학을 공부했다. 靈隱山 無著院에서 살았다.

76) 韓侂胄(1152-1207): 南宋의 權臣으로 字는 節夫이며 河南省 安陽출신이다. 寧宗(1168-1224)을 옹립하는 일에 공을 세우고 외척으로 정계에 등장했다.

77) 蜀: 지금의 四川省 일대다.

78) 唐 太宗: 唐나라의 2대 皇帝 李世民(599-649)으로 唐 高祖 李淵과 竇皇后의 차남이다. 貞觀이란 연호를 사용했다.

“하늘을 만나면 머무르고 동지를 만나도 즉시 멈추라.”라 당부했다. 도광선사가 영은사 산채를 유람할 때가 마침 白樂天⁷⁹⁾이 태수를 맡았을 때였다. 도광선사가 깨달음을 얻어 “우리 스승께서 명하신 곳이구나.”하고는 바로 錫杖⁸⁰⁾을 꽂았다. 백거이가 이 일을 듣고 도광선사와 벗이 되었고 그의 법당에 ‘法安’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절 안에는 金蓮池와 烹茗井이 있고 벽에 趙闕道⁸¹⁾와 蘇子瞻⁸²⁾의 이름이 적혀있다. 도광암의 우측에는 呂純陽殿⁸³⁾이 있는데 萬曆 12년⁸⁴⁾에 지었고 參政⁸⁵⁾ 郭子章⁸⁶⁾이 이를 기록했다. 낙빈왕이 도망가 승려가 된 뒤 이 절에 숨었다.⁸⁷⁾ 그 후 宋之問⁸⁸⁾이 폄적된 곳에서 江南으로 돌아오다가 우연히 여기서 머무르기도 했다. 한밤중 달이 가장 밝을 때 송지문이 장랑에서 시구를 짓는데, ‘鷲嶺은 높고 울창한데 龍宮은 굳게 닫혀 적막하구나.’⁸⁹⁾라 하고 다음 구절을 짓지 못해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한 노승이 장명등을 밝히며, “젊은이가 한밤중에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며 시를 지으니, 어찌 그러오?”라 묻자, 송지문이 “제가 이 절을 위해 시를 짓는데 上句는 지었으나 下句를 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 답했다. 노승이 上句를 읊어 달라 청하자 송

79) 白樂天(772-846): 唐나라의 詩人 白居易로, 字가 樂天이다. 사실 백거이는 中唐시기의 인물로 당태종과는 거리가 있다.

80) 錫杖: 승려가 짊고 다니는 지팡이다. 원문에는 卓錫이라 했는데, 모두 승려가 한 절에 잠시 머무른다는 뜻이다.

81) 趙闕道(1008-1084): 北宋시기 浙江省 衢州 출신의 關子 趙抃이다.

82) 蘇子瞻(1037-1101): 北宋의 文人 蘇東坡로 字가 子瞻이다.

83) 呂純陽: 呂純陽의 이름은 呂巖이고 字는 洞賓이다. 別號로 純陽子라 했다. 道教 신선의 한 명으로 八仙의 우두머리라 전해진다.

84) 萬曆 12년: 1584년이다.

85) 參政: 元代에 만들어진 관직으로 參知政事를 말한다. 副宰相에 상응하는 자리다.

86) 郭子章(1542-1618): 명나라 江西省 泰和 출신으로 字는 相奎, 號는 青螺 또는 鱗衣生이라 했다. 隆慶 5년(1571)에 進士가 되고, 貴州巡撫까지 올랐다. 萬曆 27년(1599) 李化龍 등과 함께 播州 楊應龍을 평정하고 그 공으로 太子少保와 兵部尙書에 올랐다. 典籍을 많이 읽었고, 저술도 상당량에 달했다.

87) 駱賓王之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데, 피살되었다는 설과 망명했다는 설, 또 승려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88) 宋之問(656-712): 唐代的 詩人으로, 字는 延清이며 山西省 汾陽출신이다. 唐 中宗 李顯(656-710)이 즉위한 뒤 則天武后(624-705)가 아꼈던 신하 張易之(?-705)에게 아첨했다는 이유로 강등되어 남방으로 추방되었다.

89) 이 詩는 송지문의 <靈隱寺>로, 鷲嶺은 부처가 설법한 인도의 靈鷲山을 뜻하며 龍宮은 왕이 부처의 설법을 들은 곳이라 하여 영은사를 뜻한다.

지문이 그렇게 했다. 노승은 “어찌 ‘누각에 올라 푸른 바다 해 바라보고, 문에서 浙江의 조수와 마주하네’로 짓지 않소?”라 하자 송지문은 깜짝 놀라며, 그 강렬하고 아름다운 시구를 연결하여 완성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노승을 방문했지만 다시 만날 수 없었다. 이 일을 아는 자가 그가 바로 駱賓王이라고 말해주었다.

2.8. < 岫巖山房 >

李芑號岫巖, 武林人, 住靈隱韜光山下. 造山房數楹, 盡駕回溪絕壑之上. 溪聲淙淙出閣下, 高厓插天, 古木蓊蔚, 大有幽致. 山人居此, 孑然一身. 好詩, 與天池徐渭友善. 客至, 則呼僮駕小舫, 蕩槳於西泠斷橋之間, 笑詠竟日. 以山石自礫生壙, 死即埋之. 所著有岫巖山人詩集四卷. 天啓甲子, 余與趙介臣、陳章侯、顏敘伯、卓珂月、余弟平子讀書其中. 主僧自超, 園蔬山蕨, 淡薄淒清. 但恨名利之心未淨, 未免唐突山靈, 至今猶有愧色.

< 구루산방 >

李芑⁹⁰⁾의 號는 岫巖로, 武林 사람이며 靈隱寺와 韜光庵 산 아래에서 살았다. 산방 여러 채를 지었는데 모두 휘몰아치는 시내와 깊은 골짜기 위에 있었다.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산방 아래로 들리고 높은 절벽이 하늘을 찌르며 고목이 우거져 있어 분위기가 대단히 그윽했다. 이발이 여기에 머물렀을 때 혈혈단신이었다. 詩를 좋아하고 天池 徐渭⁹¹⁾와 친했다. 손님이 오면 어린 하인을 불러 작은 배를 끌고 西泠橋 사이를 노 저어 다니며 웃고 떠들며 하루를 보냈다. 산에 있는 돌을 직접 쌓아 무덤을 만들었고 죽은 뒤에는 그곳에 묻혔다. 저술한 책으로는 《岫巖山人詩集》 4권이 있다. 天啓 甲子⁹²⁾에 나는 趙介臣⁹³⁾·陳章

90) 李芑: 주석 44번 참조.

91) 徐渭(1521-1593): 字는 文長이고 號는 天池山人으로, 晚明 시기 山陰 출신의 문인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雜劇 《四聲猿》과 문집인 《徐文長集》 30권이 있다.

侯⁹⁴)·顏敘伯⁹⁵)·卓珂月⁹⁶)·내 아우 平子⁹⁷)와 함께 여기서 책을 읽었다. 주지승 自超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며 소박하게 지냈다. 그러나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씻지 못해 산의 영기를 거스른 것이 한스러우니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끄럽다.

2.9. <靑蓮山房>

靑蓮山房, 爲涵所包公之別墅也. 山房多修竹古梅, 倚蓮花峰, 跨曲澗, 深岩峭壁, 掩映林巒間. 公有泉石之癖, 日涉成趣. 台榭之美, 冠絕一時. 外以石屑砌壇, 柴根編戶, 富貴之中, 又著草野. 正如小李將軍作丹青界畫, 樓臺細畫, 雖竹籬茅舍, 無非金碧輝煌也. 曲房密室, 皆儲侍美人, 行其中者, 至今猶有香豔. 當時皆珠翠團簇, 錦繡堆成. 一室之中, 宛轉曲折, 環繞盤旋, 不能卽出. 主人於此精思巧構, 大類迷樓. 而後人欲如包公之聲伎滿前, 則亦兩浙薦紳先生所絕無者也. 今雖數易其主, 而過其門者必曰“包氏北莊”.

<청련산방>

靑蓮山房은 涵所 包公⁹⁸)의 별장이다. 산방에는 높게 뻗은 대나무와 오래된

92) 天啓 甲子: 天啓는 明 熹宗 朱由校(1605-1627)의 연호로 1621년부터 1627년까지 사용되었다. 천계 갑자는 1624년이다.

93) 趙介臣(?-?): 趙繼攄으로 字가 介臣이다. 청초에 명나라를 위해 활동하다 잡혀 죽을 때까지 굶하지 않았다. 장대의 친구로 《陶庵夢憶·禊泉》에 언급되어 있다.

94) 陳章侯(1598-1652): 陳洪綬로, 字는 章侯이다. 명나라가 망하자 청나라의 포로가 되었지만 불복했고 紹興 雲門寺의 승려가 되었다. 산수화를 잘 그렸는데 《九歌》와 《西廂記》에 그린 삽화가 유명했고, 문장에도 재주가 있어 《寶繪堂集》을 남겼다.

95) 顏敘伯(?-?): 명나라의 유민으로 청나라가 들어서자 은거했다.

96) 卓珂月(1606-1636): 卓人月로 字는 珂月, 號는 蕊淵이다. 晚明 시기 杭州출신의 문인으로 《寤歌詞》, 《蕊淵集》, 《蟾臺集》과 같은 작품을 남겼다.

97) 平子: 장대의 동생 張禪으로, 字가 平子이다.

98) 涵所 包公: 明 萬曆 연간에 進士를 지낸 包應登으로 장대 할아버지 張汝霖의 친구다. 영은사 근처 包莊이라는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호몽심》 권4에 수록된 <包衡莊>이라는 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도암몽역》에 수록된 <包涵所>와 동일하다.

매화가 많았고 蓮花峰⁹⁹⁾ 가까이 있으며 굽은 계곡에 걸쳐 있어, 깊이 박힌 바위와 가파른 절벽과 숲 속에서 잘 어울린다. 함소 포공은 산수에 빠져 날마다 돌아다니며 정취를 만끽했다. 누대의 아름다움은 당시의 으뜸이었다. 외벽은 깨진 돌을 겹쳐서 쌓아 올렸고 쇠 뿌리를 엮어 문을 만들었는데, 화려한 가운데 소박함이 드러났다. 마치 小李¹⁰⁰⁾ 장군의 丹青界畫¹⁰¹⁾와 같이 누대를 세밀하게 그려 비록 대나무 울타리와 초가집이었어도 황금빛과 푸른빛으로 휘황찬란했다. 내실과 밀실에는 미인을 모아두어 그 가운데를 지나면 지금까지도 향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당시 방마다 진주와 비취가 가득했고 비단도 켜켜이 쌓여 있었다. 내실 안은 구불구불하고 빙빙 돌게 만들어져 바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주인은 이곳을 정교하게 구상했으니 迷樓¹⁰²⁾와 무척 비슷했다. 후에 사람들은 포공이 했던 것처럼 歌妓들을 앞에 가득 세우려 했지만 절강 일대의 높은 관리라 해도 결코 포공처럼 할 수 없었다. 지금은 비록 주인이 여럿 바뀌었지만 그 문을 지나가는 자는 분명 '包氏의 북쪽 산장'이라 할 것이다.

2.10. <呼猿洞>

呼猿洞在武林山. 晉慧理禪師, 常畜黑白二猿, 每於靈隱寺月明長嘯, 二猿隔岫應之, 其聲清徹. 後六朝宋時, 有僧智一仿舊跡而畜數猿於山, 臨澗長嘯, 則群猿畢集, 謂之猿父. 好事者施食以齋之, 因建飯猿堂. 今黑白二猿尚在. 有高僧住持, 則或見黑猿, 或見白猿. 具德和尚到山間, 則黑白皆見. 余於方丈作一對送之: “生公

99) 蓮花峰: 飛來峰과 연결된 봉우리로 그 모양이 연꽃처럼 벌어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100) 小李: 唐나라의 화가 李昭道(?-?)로 甘肅省天水출신이다. 彭國公 李思訓의 아들로 당나라 왕족의 친척이다. 산수화에 뛰어났는데 글 솜씨는 아버지에게 미치지 못했다. 부자를 두고 세간에는 大小李장군이라 불렀다.

101) 丹青界畫: 건물, 배 등 건조물을 채색해 그린 회화를 말한다.

102) 迷樓: 迷樓는 隋 楊帝가 揚州에 지은 궁전으로 수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 수년간 만들었다고 한다. 사망의 벽이 금빛으로 화려했으며 잘못 들어가면 하루 종일 빠져 나오지 못했다. 양제가 완성된 궁전을 보고 기뻐하며 신선이 와도 빠질만하다 하여 이름을 迷樓라 지었다.

說法, 雨墮天花, 莫論飛去飛來, 頑皮石也會點頭. 慧理參禪, 月明長嘯, 不問是黑是白, 野心猿都能答應.” 具和尚在靈隱, 聲名大著. 後以徑山佛地謂歷代祖師多出於此, 徙往徑山. 事多格辻, 爲時無幾, 遂致涅槃. 方知盛名難居, 雖在緇流, 亦不可多取.

<호원동>

呼猿洞¹⁰³은 武林山¹⁰⁴에 있다. 晉나라 慧理禪師¹⁰⁵가 검은 원숭이와 흰 원숭이를 길렀는데 영은사에 밝은 달이 뜰 때마다 큰 소리로 부르면 두 원숭이가 산굴을 사이에 두고 응답했으니, 그 소리가 맑고 깨끗했다. 그 후 六朝의 劉宋때 승려 智一이 이 일을 따라 산에서 원숭이 여러 마리를 길렀는데, 계곡에 들어서서 큰소리로 부르면 원숭이 무리가 모두 모였기에 지일을 ‘원숭이의 아버지’라 불렀다. 호사가들이 먹이를 주자 이로 인해 飯猿堂까지 지어졌다. 지금도 검은 원숭이와 흰 원숭이가 여전히 남아 있다. 高僧이 주지로 있으면 간혹 검은 원숭이나 흰 원숭이가 보였다. 구덕 스님이 산에 도착했을 때는 검은 원숭이와 흰 원숭이가 다 보였다. 나는 方丈¹⁰⁶에게 주런 한 쌍을 적어 보냈다. “生公¹⁰⁷께서 설법하시자 비처럼 天花¹⁰⁸가 떨어져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날리고 장난꾸러기 돌도 고개를 끄덕였다. 헤리 선사가 밝은 달이 떴을 때 큰 소리로 부르면 검은 원숭이, 흰 원숭이 할 것 없이 야생원숭이들이 모두 응답했다.” 구덕 스님은 영은사에서 명성이 크게 드러났다. 나중에 徑山¹⁰⁹ 불교성지가 역대 祖師¹¹⁰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라 하여 경산으로 옮겼다. 그러

103) 呼猿洞: 飛來峰의 서쪽에 위치한 동굴이다.

104) 武林山: 靈隱山을 말한다.

105) 慧理禪師: <飛來峰>의 28번 주석 참조.

106) 方丈: 절의 주지가 거처하는 방인데 나중에 주지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107) 生公(335-434): 晉말기의 高僧 竺道生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廬山 虎丘寺에서 《涅槃經》을 강의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자 돌을 모아 놓고 설법했다고 한다. 廬山의 강의를 들은 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108) 天花: 天上의 妙花로, 高僧이 경전을 강학할 때 천화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109) 徑山: 杭州 서북쪽에 위치한 산으로, 天目山을 경유하여 경산이라 불렀다. 이곳은 역대 고승들이 많이 배출된 곳으로 유명하다.

110) 祖師: 종파의 창시자를 말한다.

나 일이 잘 안 되어 얼마못가 열반에 이르렀다. 이제야 비로소 훌륭한 명성은 머무르기 어려움을 알겠다. 비록 승려라 해도 또 많이 가질 수는 없는 일이다.

2.11. <三生石>

三生石在下天竺寺後. 東坡圓澤傳曰, 洛師惠林寺, 故光祿卿李愷居第. 祿山陷東都, 愷以居守死之. 子源, 少時以貴遊子豪侈善歌聞於時. 及愷死, 悲憤自誓, 不仕, 不娶, 不食肉, 居寺中五十餘年. 寺有僧圓澤, 富而知音. 源與之遊甚密, 促膝交語竟日, 人莫能測. 一日相約遊蜀青城峨嵋山, 源欲自荊州溯峽, 澤欲取長安斜谷路. 源不可, 曰, “吾以絕世事, 豈可復到京師哉!” 澤默然久之, 曰, “行止固不由人.” 遂自荊州路. 舟次南浦, 見婦人錦襠負罌而汲者, 澤望而歎曰, “吾不欲由此者, 爲是也.” 源驚問之. 澤曰, “婦人姓王氏, 吾當爲之子. 孕三歲矣, 吾不來, 故不得乳. 今既見, 無可逃之. 公當以符咒助吾速生. 三日浴兒時, 願公臨我, 以笑爲信. 後十三年中秋月夜, 杭州天竺寺外, 當與公相見.” 源悲悔, 而爲具沐浴易服. 至暮, 澤亡而婦乳. 三日, 往觀之, 兒見源果笑. 具以語王氏, 出家財葬澤山下. 源遂不果行. 返寺中, 問其徒, 則既有治命矣. 後十三年, 自洛還吳, 赴其約. 至所約, 聞葛洪川畔有牧童扣角而歌之曰, “三生石上舊精魂, 賞月吟風不要論. 慚愧情人遠相訪, 此身雖異性長存.” 呼問, “澤公健否?” 答曰, “李公眞信士, 然俗緣未盡, 慎弗相近, 惟勤修不墮, 乃復相見.” 又歌曰, “身前身後事茫茫, 欲話因緣恐斷腸. 吳越山川尋已遍, 卻回煙棹上瞿唐.” 遂去不知所之. 後二年, 李德裕奏源忠臣子, 篤孝, 拜諫議大夫. 不就, 竟死寺中, 年八十一.

<삼생석>

三生石¹¹¹⁾은 下天竺寺 뒤에 있다. 蘇東坡는 <圓澤傳>에서 이렇게 말했다

111) 三生石: 三生은 원래 불교의 인과윤회에서 출발하는데 인연은 정해져있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삼생의 구체적인 의미는 前生·今生·來生이며 삼생석은 杭州 三天竺寺에 있다.

다.112) 洛陽城의 惠林寺는 과거 光祿卿113) 李愷114)이 살았던 곳이다. 安祿山115)이 東都116)를 함락시켰을 때 이징은 동도를 지키다 순직했다. 그의 아들 源은 어려서부터 놀기를 좋아했고, 호방하고 사치를 즐겼으며, 노래를 잘하기로 당시 유명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슬프고도 분하여 스스로 맹세하기를 벼슬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으며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하고, 절에서 오십 년을 넘게 살았다. 절에는 圓澤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사람이 넉넉하고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 이원은 그와 함께 어울리며 매우 친하게 지냈으니, 날마다 무릎을 맞대고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였다. 하루는 蜀의 青城에 있는 峨嵋山을 유람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원은 荊州117)에서 三峽으로 거슬러 가고 싶었고 원택은 長安을 지나 斜谷118)으로 가고 싶었다. 이원이 싫다며 말하길, “내 이미 세상일과 연을 끊었는데 어찌 다시 서울로 가겠습니까!”라 했다. 원택이 가만히 한참을 있다가 말하길, “가고 머무는 것은 진실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 했다. 그리하여 형주 길로 갔다. 배가 南浦119)에 정박했을 때, 비단 바지를 입은 한 부인이 항아리를 이고 물을 길는 것을 보았다. 원택이 바라보면 탄식하길, “내가 이 때문에 이 길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이원이 놀라서 묻자 원택이 대답했다. “저 부인의 姓은 王氏인데 제가 그의 아들로 태어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가진 지 삼년이 지났지만 제가 오지 않아

112) <圓澤傳>: 소동파가 쓴 <僧圓澤>으로 이후 삼생석의 典故가 되었다.

113) 光祿卿: 황실의 시종과 호위병을 관리하는 관직으로 唐代에는 황실의 음식을 관리했다.

114) 李愷(?-755): 지금의 山西省에 해당하는 並州 文水 출신으로 唐代의 관리다. 唐 玄宗 天寶 초년에 清河太守를 맡았고 光祿卿과 東都留守를 거쳐 禮部尙書가 되었다. 안록산의 장안성 공격 때 사망했다.

115) 安祿山(703-757): 唐나라 營州 柳城 胡 사람으로, 돌궐계의 雜胡 출신이다. 본래 성은 康씨고, 초명은 軻竿山 또는 阿竿山이다. 진공을 세워 玄宗과 楊貴妃의 총애를 받아 平盧와 範陽, 河東의 세 節度使를 겸했다. 재상 楊國忠과 반목하여 天寶 14년(755) 겨울 범양에서 반란을 일으켜 이후 洛陽과 長安을 함락했다. 다음 해 나라 이름을 大燕이라 하고 자칭 威武皇帝라 부르면서 聖武란 연호를 썼다. 아들 安慶緒에게 50세 때 피살되었다.

116) 東都: 洛陽을 말한다.

117) 荊州: 지금의 湖北省 襄陽市다.

118) 斜谷: 陝西省 終南山에 있는 산골짜기로, 옛날 蜀으로 가는 길이었다.

119) 南浦: 지금의 四川省 萬縣 부근에 위치한 옛 縣이다.

넣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공께서 부적과 주문을 써서 제가 빨리 환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흘 뒤 아기를 씻길 때 원컨대 공께서 제게 와주면 웃음으로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이후 13년이 지난 추석날 밤, 杭州의 天竺寺 밖에서 공과 제가 만날 것입니다.” 이원을 슬퍼하고 후회하며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저녁 무렵 원택이 입적하자 부인은 아기를 낳았다. 사흘 후 가서 보았더니 아기가 이원을 보고 정말로 웃었다. 왕씨 부인에게 이 일을 전부 말하니 집안의 돈을 내어 원택을 산 아래에 묻어 주었다. 이원은 그리하여 여정을 마치지 못했다. 혜림사로 돌아와 문도들에게 묻자 이미 원택이 남긴 유언이 있었다. 13년 뒤에 이원은 낙양에서 뚝지역으로 와 약속한 곳으로 갔다. 약속한 곳에 이르자 葛洪川¹²⁰⁾ 부근에서 한 목동이 쇠뿔을 두드리며 노래를 하길, “삼생석 위에 서린 옛 혼백이여 달을 감상하며 풍월을 읊던 일은 논하지 마시오. 부끄럽지만 情人이 먼 곳에서 왔으니, 이 몸 비록 다르지만 본성만은 여전합니다”라 했다. 큰 소리로 묻기를, “원택 스님, 안녕하십니까?”라 하자 대답했다. “李公은 정말로 믿을만한 선비요. 그러나 속세의 인연이 다하지 않았으니 삼가시고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오직 열심히 수행하여 타락하지 않는다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외다.” 그러더니 또 노래를 불렀다. “생전과 생후의 일이 까마득한데 인연을 말하고자 하니 애간장이 녹는구나. 吳越의 강산이야 이미 두루 찾아봤으니 안개 낀 강 배돌려 瞿唐¹²¹⁾으로 가련다.” 그러고는 사라져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2년 뒤 당시 재상이었던 李德裕¹²²⁾가 이원이 충신의 아들로 효성이 깊다고 상주하여 諫議大夫¹²³⁾라는 벼슬을 받게 했다. 그러나 이원은 나가지 않았고 절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의 나이 81세였다.

120) 葛洪川: 葛洪(284-364)은 東晉시기의 道學者로, 字는 稚川이고 스스로 抱朴子라 불렀다. 갈홍은 항주에 머물며 煉丹을 만들었기에 서호에는 갈홍과 연관된 유적이 있다. 갈홍천도 그 중 하나이다.

121) 瞿唐: 양자강 상류 강 가운데 있는 三峽의 하나다.

122) 李德裕(787-849): 唐代의 문인이자 관리로 字는 文饒다. 憲宗·穆宗·敬宗·文宗·武宗과 같이 여러 왕조를 거치며 관리를 지냈다.

123) 諫議大夫: 秦代에 만들어진 관직으로 議論을 담당했다.

2.12. <上天竺>

上天竺, 晉天福間, 僧道翊結茅庵於此. 一夕, 見毫光發於前澗, 晚視之, 得一奇木, 刻畫觀音大士像. 後漢乾祐間, 有僧從勳自洛陽持古佛舍利來, 置頂上, 妙相莊嚴, 端正殊好, 晝放白光, 士民崇信. 錢武肅王常夢白衣人求葺其居, 寤而有感, 遂建天竺觀音看經院. 宋咸平中, 浙西久旱, 郡守張去華率僚屬具幡幢華蓋迎請下山, 而澍雨沾足. 自是有禱輒應, 而雨每滂薄不休, 世傳爛稻龍王焉. 南渡時, 施舍珍寶, 有日月珠, 鬼穀珠, 貓睛等, 雖大內亦所罕見. 嘉祐中, 沈文通治郡, 謂觀音以聲聞宣佛力, 非禪那所居, 乃以教易禪, 令僧元淨號辨才者主之. 鑿山築室, 幾至萬礎. 治平中, 郡守蔡襄奏賜“靈感觀音”殿額. 辨才乃益鑿前山, 辟地二十有五尋, 殿加重簷. 建咸四年, 兀術入臨安, 高宗航海. 兀術至天竺, 見觀音像喜之, 乃載後車, 與大藏經並徙而北. 時有比丘知完者, 率其徒以從. 至燕, 舍於都城之西南五里, 曰玉河鄉, 建寺奉之. 天竺僧乃重以他木刻削前像, 詭曰, “藏之井中, 今方出現”, 其實並非前像也. 乾道三年, 建十六觀堂, 七年, 改院爲寺, 門匾皆御書. 慶元三年, 改天台教寺. 元至元三年毀. 五年, 僧慶思重建, 仍改天竺教寺. 元末毀. 明洪武初重建, 萬曆二十七年重修. 崇禎末年又毀, 清初又建. 時普陀路絕, 天下進香者皆近就天竺, 香火之盛, 當甲東南. 二月十九日, 男女宿山之多, 殿內外無下足處, 與南海潮音寺正等.

<상천축>

上天竺¹²⁴)은晉天福¹²⁵)연간에 승려 道翊¹²⁶)이 지은 암자다. 어느 날 밤 도익이 앞개울에서 실오라기 같이 가는 빛을 발견하고는 밤마다 가서 보다 기이한 나무를 습득해 觀音大士像을 새겼다. 後漢 乾祐¹²⁷)연간에 승려 從勳이

124) 上天竺: 杭州 靈隱寺 남쪽 산 白雲峰 아래에 위치한 절이다. 상천축은 法喜寺 혹은 法西寺라고도 한다.

125) 天福: 五代 後晉의 高祖 石敬瑭(892-942)의 연호다.

126) 道翊(?-?): 晉代의 승려로, 白雲峰 아래에서 청빈하게 생활하며 세속과 단절하며 살았다고 한다.

127) 乾祐: 後漢의 高祖 劉皓(895-948)와 隱帝 劉承祐(930-951)의 연호로 948년부터 950년

洛陽에서 古佛舍利를 가지고 와 관음대사상 위에 올려 두었는데 그 모습이 장엄하고 단정하며 대낮에도 환한 빛을 발하여 백성들이 신봉했다. 후에 錢武肅王이 흰 옷을 입은 자가 거처를 수리해 달라고 청하는 꿈을 자주 꾸었는데, 잠에서 깨고 난 뒤 깨달은 바가 있어 天竺觀音看經院을 지었다. 宋 咸平¹²⁸⁾ 연간 浙西 일대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자 郡守 張去華¹²⁹⁾가 관원들을 데리고 幡幢¹³⁰⁾과 華蓋¹³¹⁾를 갖추어 관음보살이 하산해 주길 청하자 단비가 내려 밭을 적셨다. 이로부터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하여 비가 내릴 때마다 쏟아져 그치지 않았으니, 세상에 전해지기로는 爛稻龍王이라 했다. 남쪽으로 강을 건널 때 진귀한 보물이 시주되었는데 日月珠, 鬼殺珠, 貓睛 같은 것들로, 왕궁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다. 嘉祐¹³²⁾ 연간에 沈文通¹³³⁾이 郡을 다스릴 때 이르길, 관음은 聲聞¹³⁴⁾으로써 불법을 선양하니 禪那¹³⁵⁾가 거처할 곳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禪'을 '教'로 바꾸고, 辨才라는 號를 쓰는 승려 元淨¹³⁶⁾을 불러 주지를 맡겼다. 산을 깎아 집을 지었는데 몇 개에서 수 만개의 층으로 만들었다. 治平¹³⁷⁾연간에 郡守 蔡襄¹³⁸⁾이 황제에게 주청하여 '靈感觀音'이 적힌 편액을 하사받았다. 변재는 앞쪽 산을 깎아 25尋¹³⁹⁾의 땅을 개간했고 대전에 重簷을 더

까지 사용되었다.

128) 咸平: 宋 眞宗 趙恒(968-1022)의 연호로 998년에서 1003년까지 사용되었다.

129) 張去華(938-1006): 字는 信巨이고 開封 襄邑 출신이다. 宋 太祖 建隆 2년에 進士가 되었고 후에 여러 관직을 맡다가 항주의 군수로 부임했다.

130) 幡幢: 불교에서 부처와 보살의 덕을 나타내고 道場을 공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깃발이다.

131) 華蓋: 꽃으로 만든 우산 모양의 장식물이다.

132) 嘉祐: 宋 仁宗 趙禎(1010-1063)의 연호로 1056년부터 1063년까지 사용되었다.

133) 沈文通(1028-1067): 沈遘로 字가 文通이다. 지금의 항주일대인 錢塘 출신이다. 仁宗 皇祐 元年(1049)에 進士가 되었고 이후 항주로 부임했다.

134) 聲聞: 석가의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 불제자를 이르는 말이다.

135) 禪那: 禪定으로, 불교의 수행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즉 般若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해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 산란한 마음을 멈추고 고요하게 만들어 입정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136) 元淨(1011-1091): 北宋시기의 승려 徐元淨으로 杭州 於潛출신이다. 10세에 출가하여 후에 上天竺의 주지가 되어 20년 동안 설법했다. 神宗으로부터 紫衣와 辨才大師라는 號를 하사받았다.

137) 治平: 宋 英宗 趙曙(1032-1067)의 연호로 1064년부터 1067년까지 사용되었다.

138) 蔡襄(1012-1067): 北宋의 문인으로 字는 君謨이며 福建출신이다. 서법에 능했고 차를 전문적으로 연구했으며 杭州府事를 맡았다.

했다. 建威 4년¹⁴⁰)에 兀術¹⁴¹)이 臨安을 공격해 들어오자 高宗은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갔다. 올출은 천축사에 이르러 관음상을 보고 좋아하며 뒷수레에 싣고 《大藏經》과 같이 북쪽으로 옮겼다. 당시 比丘¹⁴²) 知完이라는 자가 무리를 이끌고 따라갔다. 燕(河北)에 도착하여 도성의 서남쪽으로 5리 떨어진 곳에 머물렀는데 玉河鄉이라 불리는 곳에 절을 짓고 관음상을 봉양했다. 천축사의 승려들은 다른 나무로 이전과 같은 불상을 조각하여 사람들을 속이길, “우물 안에 숨어있다 오늘에야 나타났네요.”라고 했다. 사실은 이전의 불상이 아니었다. 乾道 3년¹⁴³)에 16觀堂이 세워졌고, 7년에 ‘院’은 ‘寺’로 바뀌었으며 문의 편액은 모두 황제가 썼다. 慶元 3년¹⁴⁴)에 天台敎寺로 바뀌었다.¹⁴⁵) 元 至元 3년¹⁴⁶)에 훼손되었다. 5년에 승려 慶思가 다시 지으면서 天竺敎寺로 이름이 바뀌었다. 元나라 말년에 다시 훼손되었다. 明 洪武 초기에 재건했다가 萬曆 27년¹⁴⁷)에 보수했다. 崇禎 末年에 또 훼손되었다가 淸나라 초기에 다시 지어졌다. 당시 普陀山 길이 끊어져 천하의 향배객들이 가까운 천축사로 갔는데 향불이 번성함에 동남에서 으뜸이었다. 2월 19일¹⁴⁸), 산에 묵는 남녀가 많았는데 사원의 안팎으로 발자국은 없었으니 南海 潮音寺¹⁴⁹)와 같았다.

139) 尋: 古代의 길이 단위로, 1尋은 약 2.6미터이다.

140) 建威 4년: 宋 高宗 建炎 4년으로 1130년이며, 威은 炎을 잘못 적은 것이다.

141) 兀術(?-1148): 金나라의 太祖 完顏阿骨打的 넷째 아들 完顏宗弼이다. 女眞族으로 금나라의 개국공신이다.

142) 比丘: 남자로서 출가하여 걸식으로 생활하는 승려를 말한다.

143) 乾道 3년: 乾道는 宋 孝宗 趙昚(1127-1194)의 연호로 1165년부터 1173까지 사용되었다. 建道 3년은 1167년이다.

144) 慶元 3년: 宋 寧宗 趙擴(1168-1224)의 연호로 1195년부터 1200년까지 사용되었다. 景元 3년은 1197년이다.

145) 天台宗: 천태종은 불교의 한 종파이다. 창시자 智顓가 절강성 태주의 천태산에 살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교리가 《妙法蓮華經》을 바탕으로 했기에 法華宗이라고도 한다.

146) 至元 3年: 元 惠宗 至元 3年으로 1266년이다.

147) 萬曆 27年: 1599년이다.

148) 음력 2월 19일은 관음보살탄생일로, 향배객들이 많이 물리는 花朝節과 맞물리는 때다.

149) 南海 潮音寺: 남해 조음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 參考文獻 >

- 張 岱, 夏咸淳·程維榮 校注, 《陶庵夢憶·西湖夢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 林邦鈞 注評, 《西湖夢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3.
——, 俞瓊穎 評注, 《西湖夢尋》, 上海: 三聯書店, 2014.
班 固, 《漢書》, 臺北: 三民書局, 2013.
脫 脫,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77.
葉夢得, 《石林燕語》, 北京: 中華書局, 1984.
田汝成, 《西湖遊覽志餘》, 臺北: 世界書局, 民國52(1963).
——, 《西湖遊覽志》,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0(1971).
임종욱 편저,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한보광, 임종욱 편저,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1.

< Abstract >

The Translations and Annotations of 《*Xi-hu meng xun*》(2)
— Part 2.

Kim, Sookhyang

This study is the second translations and annotations of 《*Xi-hu meng xun*》. 《*Xi-hu Meng xun*》 was written by Zhang-dai(張岱, 1597-1679), one of the Ming Dynasty writer. Xi-hu is a lake located in Hang-zhou, Zhe-jiang province. Over the centuries, many Chinese writers described the beauty of Xi-hu and its surroundings. Zhang-dai is one of them. He lived Hang-zhou for over forty years enjoying the view and culture with his own unique view. After the collapse of Ming Dynasty, Zhang-dai mourned over the ruined city. He wrote the 《*Xi-hu Meng xun*》 because he wanted to let his descendants know about the city that was once so beautiful and flourished. Therefore, Zhang-dai

divided the Xi-hu into five sections and described the natural scenery and historical sources one by one. This second chapter describes the west side of the Xi-hu. There was great natural scenery including many temples, caves, mountains, shanties and peaks. Zhang-dai wrote about its beauty in 12 works. He described the landscape in detail, as did other writers. Also he wrote records related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s in the scenery. He even left personal opinions about the characters involved in the scenery. This work explores the practical value of Late Ming Xiao-pin, and provides materials outside of literature limits.

Key Words: *Xi-hu meng xun*, Zhang-dai, Xi-hu, Late Ming Xiao-pin, Xi-hu xilu

| | | | | |
|-------------|-------------|-------------|-------------|-------------|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2018. 4. 27 | 2018. 5. 12 | 2018. 5. 17 | 2018. 5. 29 | 2018. 6. 30 |